

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

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

4b9394be201ce0056ee861bd04b5a47b9c0054b7e199560edb302529749f4b7c

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

- 주요 뉴스: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강화, 공급부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
 - 미국 9월 IHS 마켓 종합 PMI, 54.5로 12개월 만에 최저 수준
 -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헝다그룹의 종말을 대비하도록 지시
 - 터키 중앙은행,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1.0%p 인하. 리라화 가치 급락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향후 경제성장 지속에 대한 기대 등이 영향

주가 상승[+1.2%], 달러화 약세[-0.4%], 금리 상승[+1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헝다그룹 우려 완화, FOMC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 반영
유로 Stoxx 600 지수는 자동차 관련주 및 은행주 강세 등으로 3일 연속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화 가치는 0.4% 상승, 엔화는 0.5%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주가상승과 조기 금리인상 시각 등으로 큰 폭 상승
독일은 ECB 통화정책의 파급적 기조 강화 가능성 등으로 6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75.2원, -0.3원) 포함, 한국 CDS 포함

		9/23일	9/22일	전일대비			9/23일	9/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449.0	4,395.6	1.21%	국채 금리 10y	미국	1.43%	1.30%	13bp
	유럽	467.50	463.20	0.93%		독일	-0.26%	-0.32%	6bp
	중국	3,642.2	3,628.5	0.38%	CDS 5y	한국	19bp	19bp	0bp
	일본	휴장	29,639	-		중국	43bp	43bp	0bp
	한국	3,127.6	휴장	-0.41%	위험 지표	EMBI+	-	367	-
환율	달러지수	93.11	93.46	-0.38%		VIX	18.63	20.87	-10.73%
	유로화	1.1739	1.1687	0.44%		WTI유	73.30	72.23	1.48%
	엔화	110.33	109.78	-0.50%	원자재	구리	422.5	425.3	-0.66%
	위안화	6.4589	6.4622	0.05%		금	1,742.8	1,768.2	-1.44%
	원화	1,175.5	휴장	-0.04%					

주: 주가는 미국 S&P500, 유럽 Stoxx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 강화, 공급부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초래

- 원유, 천연가스, 금속 등 주요 원자재 생산을 위한 신규 투자는 오랫동안 낮은 가격 등으로 부진했고,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탄소배출 감축 요구 등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 이는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유발
- FactSet은 올해 원자재 가격지수의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 또한 델타 변이와 중국 헝다그룹 사태 등 단기적으로 수요 둔화를 유도했던 요인들이 해소되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
- Jefferies의 Chris LaFemina는 모든 국가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공급부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평가. 또한 지금부터 관련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확대해도 실제 생산량 증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9월 IHS 마켓 종합 PMI, 54.5로 12개월 만에 최저 수준

- IHS 마켓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전월(55.4) 및 예상치(58.3) 모두 하회. 원자재 및 필요 인력의 공급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 이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3/4분기, 4/4분기 성장률도 당초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미국 하원의장, 연방기관의 10월 현금부족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

- 민주당의 펠로시 의장은 9월이 지난 이후에도 연방기관들이 정상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부채상한 확대 논의 또한 조만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 이날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은 10/1일부터 현금부족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을 검토하도록 지시

■ ECB,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긴급자산매입(PEPP)은 예정대로 내년 3월 종료 가능성

- 익명의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향 조정되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PEPP의 종료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PEPP 종료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통상적인 자산매입(APP)의 규모를 월간 400억유로(현행 200억유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
- 다만 다른 관계자들은 아직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을 단언할 수 없기에, 향후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확인한 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 영란은행, 기준금리와 자산매입 규모를 동결. 2022년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

- 다만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2명의 통화위원은 자산매입 축소를 주장. 금년 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4%를 상회할 수 있다고 예상. 이에 시장에서는 내년 2월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고 이르면 금년 말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헝다그룹의 종말을 대비하도록 지시

-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따른 실업 증가 등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요구. 또한 회계 및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지방정부 혹은 다른 민영기업이 헝다그룹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침 전달
- WSJ는 이번 지시가 헝다그룹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피력한 것이며, 헝다그룹 사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여파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 또한 일부 지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 부동산 규제 완화도 가능하다고 예상

■ 터키 중앙은행,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 1.0%p 인하. 리라화 가치 급락

-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8%로 하향 조정하고, 낮은 수준의 근원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하지만 시장에서는 동결을 전망. 전문가들은 통화완화를 주장했던 에르도안 대통령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평가

■ 유명 투자자 캐시 우드, 미국 증시가 버블(bubble) 상태는 아니라고 평가

- ARK 자산운용 캐시 우드 CEO는 시장에서 신기술 업체들이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언급. Refinitiv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향후 12개월 추정 주가수익비율(PER)은 21로 과거 10년 평균(16.5) 대비 높은 상태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23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3주차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만건): 35.1, 전주(33.5), 예상치(32.0)
- 미국 8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0.29, 7월(0.53), 예상치(0.50)
- 유로존 9월 IHS 마킷 종합 PMI(속보치): 56.1, 8월(59.0), 예상치(58.5)

■ 주요 경제 이벤트(9/24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 독일 9월 Ifo 경기기대지수, 영국 9월 GfK 소비자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연준, 코로나 19 변종 등으로 정책 구사에 어려움 직면 - 블룸버그

(The Fed Has to Grapple With Mounting Uncertainty)

- 9월 FOMC 성명서에서 제시된 연준의 정책방향과는 달리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은 고조. 이에 양적완화 축소나 금리인상 시점과 무관하게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조가 중요
-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 시 양적완화를 축소했어야 했으며,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가 충분하지 않은 편. 무엇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포워드 가이드선도 현재로는 유효하지 않은 상황

■ 헝다그룹, 중국 부채위기의 연속성 시사. 해결 경로는 과거와 유사할 가능성 - WSJ

(Evergrande Is Only the Latest in a Chain of Chinese Debt Crises)

- 최근 중국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 위기가 금융시스템 및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이에 중국 정부의 과거 사례를 주시할 필요
- 금리인상으로 비롯된 2014~16년 중국 주택시장 위기 당시에는 자본통제가 강화되었으나, 정부지원과 금리인하 대응으로 해결. 2017~18년 그림자금융 규제에 기인한 대출 증가세 둔화는 미국의 호황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회복
- 그림자 금융 규제 여파로 인한 2019년 소규모 지역은행 재정악화와 단기금융 시장 혼란은 인민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투입과 바오샹은행의 정부 인수로 일단락. 중국 정부는 금번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완화적 정책으로 선회할 소지

■ 미국 연준, 불확실성 내재 속 정책변경 시사는 통화정책의 변곡점 신호 - Financial Times

(The Fed has signalled an inflection point)

■ 중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기존 협약의 높은 기준을 저해할 우려 - 블룸버그

(Asia Trade Bloc Would Be Foolish to Welcome China)

■ 출구 없는 마중 갈등, 전세계 경제와 외교에 위험을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A US-China clash is not unthinkabl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ikyoon@kcif.or.kr